

오늘은 2020년 9월 둘째 주일입니다.  
2020년 9월 13일 언약교회 이모조모입니다.

- 1)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2)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혹은 좀 더 자세한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나 혹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번거로우실수도 있겠지만, '방문자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시간에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득불 아이들이 조금씩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이 익숙치 않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저희 교회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앞쪽으로 나와서 자리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 뒤쪽보다는 약간이나마 좀 더 조용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공지입니다>

1. 주일 오전예배는 특별한 공지가 없는한 계속 드립니다.
2. 다만, 열이나 기침등 증상이 있으신 성도분들은 교회에 연락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3.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염려가 되시는 분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셔도 됩니다.
5.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발열체크, 증상유무확인, 손세정제로 손씻기, 개인마스크 착용 확인등을 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고, 예배당에서는 가족들은 함께 앉으시고, 가족 아닌 분들과는 의자 하나를 비워두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6.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당분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려는 다른 교회 성도분들은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타교회 성도분들 예배 가능한지 공지하겠습니다. 혹시 꼭 예배드리러 오실 분은 미리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pastorcho@hanmail.net](mailto:pastorcho@hanmail.net))

1. 예배당 리모델링이 끝나고, 여러 잡다한 공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청소, 정돈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 오늘도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채 11시에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지껏은 설교 동영상 녹화를 해도 음성이 들어오지 않거나 잡음이 크거나 리모델링 및 기술적인 기타 여러 이유 때문에 동영상 파일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 설교 동영상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올립니다.  
가정 예배등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내일(14일, 월)부터 아침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은 아침 9시30분입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아침예배 설교 음성화일을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입니다.  
가정예배, 혹은 개인 말씀 묵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주중에 전체 카톡등을 통해 공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배당 출입문이 2개가 되었습니다만, 원래 사용하던 문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동안 사용했던 예전 동성학원 측 문을 이제는 잠귀 둘 예정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둘러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전 출입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배당에 주중에 한번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7. 교회 계좌로 직접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06 001 04 148 682 언약교회  
우리은행 1005-901-708982 언약교회  
신한은행 100-032-008667 언약교회  
농협 355-0070-8191-13 (예금주/언약교회)  
<교육관 현금> 우리은행 1005-202-531785 (예금주/언약교회)

이번 한주간 동안도 다들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